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학년도 수능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

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 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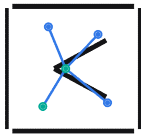
1 문단

1)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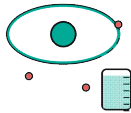
1-1) 전제 파악하기

-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과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무관한 지식, 과학적 지식은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분류한다.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 이러한 구분은 '전제'에 해당하므로 대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좋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 분류



[수학적, 논리학 지식]
경험과 무관!



[과학적 지식]
경험에 의존!

기출 플러스

수학적 지식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_ 2007학년도 수능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 $2+3=5$ '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 $2+3=5$ '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다.

- ▶ 수학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증명될 수 있으므로, 경험적 지식으로 보기 어렵다.



한 걸음 더 작'S Q&A

Q. 초등학교 때 사과 하나와 다른 사과 하나가 합쳐지면 사과가 두 개 된다는 식으로 덧셈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 $1+1=2$ '는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

- ▶ 그렇지 않다. 기초적 연산을 가르치기 위해 일상의 사물을 동원하는 것은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1+1=2$ 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려면 현실에 완전히 똑같은 사과 둘이 존재해야 한다. 두 개의 사과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같은 사과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과가 있을 뿐이니 말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똑같은 사과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1=2$ 는 경험적 근거에 의존하는 지식이 아니다.

2)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2-1) 개념어의 정의 파악하기

- ▶ 위대목에서 정의된 '과학적 방법'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정의가 머리에 입력되지 않고 튕겨 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표시를 남겨 두어야 한다.
- ▶ 이때, 가설은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의 후보'라고 말할 수 있다.

2-2)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1)에서 과학적 지식은 경험에 의존한다고 설명되었으니, 이를 누적시키는 '과학적 방법' 또한 경험적 성격을 갖는다.

3)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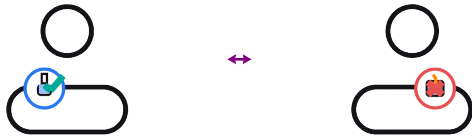
3-1) 차이점 파악하기

-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차이점이 제시된 대목이다.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기 위해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아야 한다고 보고,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으면 된다고 본다.
- ▶ 논리실증주의자가 포퍼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논리실증주의자'의 '실증'이 '확실한(실제)

증거'를 의미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더 용이하다. (실제 증거를 중시하니, 예측이 확실히 '맞아야' 가설을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한다는 식으로 이해!)

- ▶ 만약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별도의 표시를 남겨 놓는 것이 좋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논리실증주의자]

확실한 증거를 가져 와!
▶ 예측이 맞아야 새로운 지식 인정

[포퍼]

틀리지만 않으면 돼!
▶ 예측이 틀리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 인정

2 문단

1) 하지만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1-1) 다른 의견에 주목하기

-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가설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 ▶ 콰인의 주장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을 설명한 1문단과 '하지만'이라는 접속어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니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곧 **가설만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추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에서 도출된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여 새로운 지식을 추가한다. 만약 가설만으로 예측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가설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1-2) 예시는 재진술이다(패러프레이징 읽기)

- ▶ 필자는 뒤이어 예시를 제시하며, 콰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 ▶ 결국 예시는 재진술이니, 위에 제시된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에 입각하여 이해해야 하고, 만약 이해하지 못했다면 예시를 통해 위에 제시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 ▶ 콰인의 주장은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는 가설이고 ㉢는 예측이니, ㉡(가설)만 가지고는 ㉢(예측)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내용이 제시된다.

2)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1)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콰인은 가설뿐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 예측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가설만으로 예측을 도출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잘못된 주장을 펼친 것이 된다.
- ▶ 이에 따르면 예측이 거짓이어도, 가설이 잘못된 것인지, 기존의 지식이 잘못된 것인지, 조건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ONLY 가설
▶ 예측

[콰인]

가설 + 기존 지식들 + 여러 조건
▶ 예측

3)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3-1)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정의 납득하기

- ▶ '총체주의'의 지시적 의미는 '총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문의 정의를 납득할 수 있다(결국, '전체 지식'을 다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니, '총체'를 중요시하는 것!).

3-2) 방향성 잡기

- ▶ '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다. 뒤이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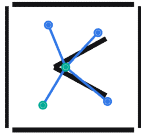
3 문단

1)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1-1)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지식을 둘로 구분한다는 내용은 이미 1문단에서 설명된 바이다. 이와 연결지어 이해한다면, 각 지식에 이름만 붙여 주는 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분석 명제', '종합 명제'라는 이름을 1문단에 제시된 정보와 연결하는 표시를 남겨 두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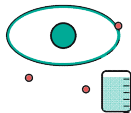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 분류



[수학적, 논리학 지식]

경험과 무관!

- ▶ 분석 명제



[과학적 지식]

경험에 의존!

- ▶ 종합 명제

1-2)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정의 납득하기

- ▶ '분석 명제'의 지시적 의미는 분석적인 명제이고, '종합 명제'의 지시적 의미는 종합적인 명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문의 정의를 얼추 납득할 수 있다. (분석 명제는 분석을 통해 참·거짓을 밝힐 수 있는 명제를 뜻하고, 종합 명제는 경험을 종합해야 참·거짓을 밝힐 수 있는 명제를 뜻한다.)
- ▶ 이 과정이 어렵다면,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1문단의 내용과 연결짓는 과정이라도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

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1-1) 핵심 정보 읽어내기

- ▶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나, 이를 설명하기 위한 부연 상술이 다소 이해하기 까다로운 구성이다. 이런 경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만이라도 포착하려 노력해야 한다.
- ▶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한다. 즉, 지식을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단의 마지막을 보면 '분석 명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제시되어 있다. 즉, 콰인은 경험과 무관한 분석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대목이 괄호 () 표시한 부분이다.
- ▶ 즉, () 표시된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면,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미 필자가 결론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상태이니 정보 처리 능력에 한계에 부쳤다는 생각이 들면 결론만 파악한 뒤 넘어가도 좋다.

1-2) 깊이 있는 이해(여유가 있는 사람만 시도할 것)

_ 정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부연 상술 납득하기

- ▶ 후자(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분석 명제이다. Why? 후자(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전자(총각은 총각이다.)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Why?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은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Why?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을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어찌저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 '필연성 개념'이라는 점 또한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언제나 반드시' 그러한 것이 '필연적'인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순환론'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뒤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 걸음 더 순환 논증

- ▶ '순환론' 즉 순환논증은 논증해야 할 명제를 논증의 근거로 삼는 잘못된 논증을 말한다. 가령, P가 '형직이는 바보다.'라고 주장했다고 치자. P는 '형직이가 바보인 것은 형직이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나가던

Q는 P에게 왜 형직이가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P는 이 물음에 ‘그것은 형직이가 바보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 경우 ‘형직이는 바보다’라는 P의 최초의 주장은, ‘형직이는 바보이다’라는 근거에 의존하게 된다. 즉, 논증해야 할 명제인 ‘형직이는 바보다’가 동시에 논증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순환론’ 또는 ‘순환논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순환론은 잘못된 논증이다.

[순환 논증]

P : 형직이는 바보야 왜?	P : 난 머리가 좋아 왜?
P : 형직이는 바보이기 때문이야	P : 머리가 좋으니까!

- ▶ 순환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 내용을 이해해 보자. 필연성 개념은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필연성 명제는 경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석 명제이기 때문이다. 이때 순환론의 오류가 발생한다. ‘후자(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분석 명제이다.’를 증명하기 위해 출발한 논증이 다시 ‘분석 명제’에 의존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순환 논증]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분석 명제이다.

왜?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을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석 명제)

▶ 분석 명제를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분석 명제!

- ▶ 위의 논증에 따른다면, 분석 명제 개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증은 잘못된 논증이기 때문에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 ▶ 이상으로 위 내용을 정리할 수 있지만, 완벽히 납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해하려 최대한 노력하되, 실전 상황에서는 큰 맥락만 잡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좋다. 즉, 위 내용은 결국 분석 명제/종합 명제의 구분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니, 분석 명제 개념에 대한 입증은 순환론에 빠지고, 그 근거가 없다는 것만 잡아내면 된다.

기출 플러스

순환논증(순환 논리)

_ 2016학년도 수능 A

먼저 흠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 ▶ 귀납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귀납에 의존해야 하므로, 귀납의 정당화에는 순환논증이 작용한다. 이에 따르면 귀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4 문단

1) 좌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좌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1)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의 구분을 부정한 좌인은 지식을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으로 분류한다. 다만, 두 지식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모두 경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볼 수 없다. 좌인이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첫 문장을 바탕으로 정보를 보다 쉽게 엮어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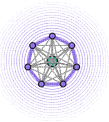
1-2)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정의 납득하기

- ▶ ‘중심부 지식’은 중심에 있는 지식이므로, 경험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반면, ‘주변부 지식’은 주변부에 있는 지식이므로,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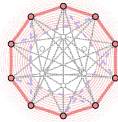
1-3) 정의를 바탕으로 부연 상술 납득하기

- ▶ ‘주변부 지식’ 주변부에 있으므로 경험과 직접 충돌하며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뀐다.
- ▶ 이와 달리 ‘중심부 지식’은 중심부에 있으므로,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며 주변부 지식에 비해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과인의 지식 분류



[중심부 지식]
경험과 직접 충돌 X



[주변부 지식]
경험과 직접 충돌

2)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1) 정의를 바탕으로 부연 상술 납득하기

- ▶ 주변부 지식은 주변부에 있는 지식이므로, 수정해도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다. 하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들도 수정해야 한다.
- ▶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할 수도 있어, 경험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심부 지식이 수정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2-2)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과인의 입장을 정리하면, 지식은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변화하는 것은 개별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이 수정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5 문단

1)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 ▶ 총체주의는 가설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이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총체주의는 가설의 오류가 드러나더라도 실용적 필요에 따라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1등급의 독해]

1-1)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이는 총체주의가 하나하나의 개별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총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3등급의 독해]

1-1) 특이 정보에 주목하기

- ▶ 위 내용이 전체 맥락에서 벗어난 정보처럼 보인다면, 반드시 별도의 표시를 남겨 두어야 한다.

기출 플러스

실용적 필요에 따른 개념의 인정 _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재이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재이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하였다.

2)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1) 비판적 이해

- ▶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

다.”는 논리학의 법칙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는 경험과는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이다. 그런데 총체주의는 분석 명제, 즉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총체주의는 ‘위 법칙과 같은 지식은 분석 명제로 봐야하는 거 아니냐!’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 ▶ 뒤이어 제시되는 추가적 설명이 없이 글이 마무리된다. 윗글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견해를 먼저 제시한 후, 콰인의 총체주의를 설명하는 흐름이다. 콰인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논리적 결함을 반박하는 것이 글의 주된 흐름이었으므로, 총체주의의 약점을 드러내는 윗대목은 글의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따라서 대괄호 표시를 남겨 둬으로써 정보의 휘발을 막는 것이 좋다.

13.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정답 : ②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8%	72%	9%	6%	3%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 ㉡ 콰인

정답 해설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 ㉠은 가설이 경험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 ▶ ㉡은 모든 지식이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므로, 가설 또한 경험을 통해야 시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질문에는 ㉠과 ㉡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 ㉠은 '예'라고 대답하겠지만, ㉡은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은 '분석 명제'를 의미한다.
- ▶ ㉠은 분석 명제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질문에 ㉠은 '예', ㉡은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 ㉠은 예측이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생각하지만, ㉡은 예측은 가설뿐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본다. 따라서 위 질문에 ㉠은 '예'라고 대답하고, ㉡은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 ▶ ㉠은 수학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므로 '분석 명제'라고 할 것이고, 과학적 지식은 경험을 통해 증명되는 지식이므로 '종합 명제'라고 할 것이다. 즉, 두 지식은 종류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 ▶ 하지만, ㉡은 분석 명제는 없으며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콰인이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분류하기는 하나, 이 둘을 별개의 지식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은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다른 종류의 지식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 ▶ 즉, 위 질문에 ㉠은 '예' ㉡은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14. 뒷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5%	4%	7%	68%	5%

정답 해설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 분석 명제의 증명 과정이 순환론에 빠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 논리실증주의자는 논리 '실증' 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측이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을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한다. 하지만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다면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을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지문으로 돌아가 확인한 후 풀이하면 된다.

② 논리 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이것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고,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보았다는 것은 해당 명제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실증주의자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 콰인은 전체 지식이 경험에 의존한다고 했으며,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다른 종류가 아니라고 보았다.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 ▶ 해설 생략

15.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⑤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3%	5%	13%	14%	62%

문항 해설

-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 ▶ 총체주의는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해 낼 수 없으며, 가설뿐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을 합쳐야만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가설을 비롯한 전체 지식 중 무언가를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총체주의는 ㉡가 거짓일 때 ㉠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예측(㉡)은 가설(㉠)과 더불어 ㉢까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가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을 수정해야 한다. 이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실용적 필요에 따라 중심부 지식을 수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는 ㉠과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문항 해설 참고

-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 예측에 오류가 생겼다면, 전체 지식(㉢) 체계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지식은 경험과 연결되어 있으며, 중심부 지식은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으므로 충돌은 주변부 지식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6.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5%	8%	8%	8%	57%

문항 해설

- ▶ 윗글의 마지막 부분에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미 제시되었다. 더군다나 발문이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해당 문항은 소거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답을 낸 뒤, 이와 일치하는 내용의 선지를 찾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윗글에 제시된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다고 보이는 지식이 분명 존재함에도, 모든 지식이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즉, 분석 명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

정답 해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 ▶ 문항 해설 참고

오답 해설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해설 생략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해설 생략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해설 생략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해설 생략

17.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2%	85%	9%	1%	1%

따라서 과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정답

② 다다른다